

보건복지부	<h1>보도자료</h1> <h2>9월 25일(월) 조간 (9.24.12시 이후 보도)</h2>		
	배 포 일 2017. 9. 22. / (총 16매)		
기획조정담당관	과 장	황 의 수	044-202-2310
	담당자	정 연 희	044-202-2304
응급의료과	과 장	진 영 주	044-202-2550
	담당자	강 민 구	044-202-2560
아동권리과	과 장	임 대 식	044-202-3430
	담당자	정 금 호	044-202-3433
복지정책과	과 장	황 승 현	044-202-3020
	담당자	전 하 윤	044-202-3009
자립지원과	과 장	김 우 기	044-202-3070
	담당자	배 완 복	044-202-3071
노인정책과	과 장	이 재 용	044-202-3465
	담당자	박 용 준	044-202-3460
보육기반과	과 장	김 수 영	044-202-3580
	담당자	박 준 형	044-202-3581
보험정책과	과 장	정 경 실	044-202-2710
	담당자	강 슬 기	044-202-2702
국민연금정책과	과 장	장 호 연	044-202-3610
	담당자	김 현 준	044-202-3633

## 긴 추석 연휴,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 당직 병원·약국을 전화, 스마트폰 앱 및 인터넷 포털로 확인 가능 -
- 의식 불명, 기도 막힘 등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응급처치 안내 -
- 장기간 연휴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일반서민을 위한 대책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유례가 없는 장기간 추석 연휴(9.30~10.9)에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응급실 운영기관 535개소에서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수 >

(’17. 9. 22. 집계상황)

구분 (단위: 개소)	9.30 (토)	10.1 (일)	10.2 (월)	10.3 (화)	10.4 (수)	10.5 (목)	10.6 (금)	10.7 (토)	10.8 (일)	10.9 (월)	일 평균
응급실 운영기관	535	535	535	535	535	535	535	535	535	535	535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등)	298	265	306	349	366	335	294	232	270	341	306
민간의료기관 (병·의원)	16,700	1,649	14,563	3,095	688	1,533	7,097	11,514	1,525	5,656	6,402
약국	14,228	3,408	13,037	5,864	1,657	3,370	7,941	11,607	3,101	7,496	7,171
총계	31,761	5,857	28,441	9,843	3,246	5,773	15,867	23,888	5,431	14,028	14,414

-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9월 29일(금) 오후 6시부터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또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조회할 수 있어,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한다. 이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 이외에도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이 제공되어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명절에는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적고, 타 지역 방문 등으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미리 숙지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② 떡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 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 (성인)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권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 (소아) 1세 이하 혹은 체중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 상세한 응급처치요령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 가능

○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의료인 및 119의 조언을 받는다.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 - 성인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 - 소아
	

③ 화상을 입었을 경우

-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된장·연고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동안 중앙 및 지자체에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40개 재난거점병원에는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대형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한다.
- 장기간 휴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지역사회 개원 의료인과 약사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연휴기간 동안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연휴기간 단체급식소·도시락 배달업체 등의 휴무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결식우려아동이 급식 가능한 곳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

- 이·통·반장, 이웃주민, 부녀회, 시민단체, 종교시설 등을 통해 급식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급식지원을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중앙회 및 17개 지회를 통해 독거노인, 쪽방거주민, 저소득가정, 사회복지 시설 등 소외계층에게 상품권, 현금, 생필품, 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17년 약 21만명 대상, 약 90억원 상당의 규모 지원

○ (노숙인·독거노인 지원) 연휴기간 노숙인 및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비상연락망 운영, 당직근무 등을 통해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 또한 기업, 단체 등 민간과 연계하여 명절 식품키트, 후원금품 등도 전달할 예정이다.

□ 맞벌이 가정, 일반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도 시행된다.

○ (어린이집 긴급보육)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보육 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 연장)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2일로 이틀 연장하여 연휴 직후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 장기간 연휴로 '17.9월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 가능일이 부족, 연휴 다음날인 납부 마감일(10.10)에 납부가 몰려 전산 서버 문제 발생 시 혼란 발생 우려

□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9월 26일(화)에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경기서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 추석 연휴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과 재난의료지원팀 대기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붙임> 1.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에서 응급처치요령 조회 방법  
2. 2016년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분석  
3. 추석명절 연휴대비 아동 급식지원 계획 수립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5.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대책  
6. 노숙인 보호 및 지원대책  
7.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긴급보육  
8.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 연장

**붙임 1**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에서 응급처치요령 조회 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안내 화면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앱을 통하여 주변 응급실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확인 가능

\*\*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확인만 필요할 경우 바탕화면에서 바로 ‘자동심장 충격기’ 클릭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바탕화면	심폐소생술 메뉴화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동영상
<p>“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메뉴화면 ①을 통해 병의원 약국 검색 및 응급처치 메뉴 선택가능</p>	<p>②의 추가검색 선택 후 “심폐소생술” 동영상 메뉴 선택</p>	<p>동영상 선택 보기</p>

※ 119에 전화를 한 경우 상황실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음

□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안내 화면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 응급처치요령 >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바탕화면	응급처치요령 메뉴화면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p>“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아이콘 생성됨</p>	<p>앱 메뉴 화면에서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선택</p>	<p>응급처치에 맞는 상황 선택 검색</p>



**붙임 2**

**2016년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분석**

□ 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 수

- '16년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는 약 128,000명으로 일평균 약 26,000명 방문

\*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151개 주요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 응급실

<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수 >

구분	'14년	'15년	'16년
총 내원환자 수(천명)	129	103	128
연휴기간(일)	5	4	5
일평균 환자 수(천명)	25.8	25.8	25.6

- 명절 당일과 그 다음날 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의 2.3배, 주말의 1.6배까지 증가

- 병·의원 휴진과 연휴기간 피로도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

< '16년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수 >

구분	추석 연휴			평상시	
	전날	추석	다음날	평일	주말
일평균 환자 수(천명)	26	30	28	13	19

□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 추석 다음날 오전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내원하였으며 추석 당일에는 하루 종일 이용환자가 많은 편

< '16년 추석 연휴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수 >

구분	0-3시	3-6시	6-9시	9-12시	12-15시	15-18시	18-21시	21-24시
추석전날	1,903	1,238	1,892	4,403	4,236	4,537	4,529	3,726
추석당일	2,067	1,469	2,647	5,445	5,199	5,228	4,608	3,698
추석다음날	2,139	1,507	2,427	5,860	4,988	4,269	3,762	3,133
연휴 4일차	1,861	1,123	1,326	2,826	3,264	3,406	3,575	3,057
연휴 5일차	1,892	1,306	1,867	4,076	3,875	3,620	3,338	2,562

□ 주요 질환별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 응급의료센터 이용 다빈도 질환군은 얇은 손상, 감기, 장염, 염좌, 두드러기, 복통, 열 순으로 나타남
  -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여 두드러기 2.7배, 감기 2.0배, 염좌 1.9배, 장염 2.0배, 발열 1.5배 증가하는 등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 증가
  - 명절준비, 장시간 운전, 환경변화 등으로 체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 중요

< '16년 추석 연휴 주요 질환별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수 >

구분	전체	얇은 손상	감기	장염	염좌	두드 러기	복통	발열
평상시	15,229	2,376	1,224	1,406	855	378	789	602
추석연휴	25,577	3,837	2,418	2,789	1,627	1,021	1,199	886
증가율	168%	161%	198%	198%	190%	270%	152%	147%

□ 사고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여 추석 명절 교통사고는 1.4배, 미끄러짐은 1.5배, 화상은 2.6배까지 증가하므로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

< '16년 추석 연휴 사고로 인한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수 >

구분	전체	교통사고	미끄러짐	화상	둔상	관통상
평상시	4,079	727	726	131	841	601
추석연휴	6,873	1,001	1,082	340	1,258	1,286
증가율	168%	138%	149%	260%	150%	214%

□ 추석 연휴 의료이용 관련 권장 사항

-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하므로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권장

\* '16년 추석 연휴에 감기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평균 1시간 20분 가량 체류했으며,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48,000원~56,000원 추가

**붙임 3**

**추석명절 연휴 대비 아동 급식지원 계획 수립**

□ 개요 및 경과

- 추석 연휴기간 중 급식 제공자의 고향방문, 급식소 휴무 등에 따른 아동의 결식 우려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대체 수단 확보
  -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중심으로 급식 대상, 급식 질·영양수준·위생관리 등 모니터링 실시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후원 독려
  - \* '추석 연휴기간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 지침' 지자체 통보 및 협조요청(9.1)

□ 추진현황

- (지원대상) 한부모·보호자 부재 등 결식 우려에 따른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급식지원 필요 아동
- (지원기간) 추석 명절 연휴와 연휴 전·후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기간
- (지원방법) 단체급식소, 음식점, 도시락 배달업체 등의 급식지원 여부를 사전에 파악,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결식 방지
  - 단체급식소, 음식점 등의 휴업여부 확인, 대체 급식수단을 확보하여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아동에게 사전에 안내
  - 통·반장, 부녀회, 시민단체, 종교시설 등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연계
  - 식재료 구입·보관·세척·조리까지 위생 관리 강화 및 식중독 예방

□ 추진계획

- 연휴기간 지역사회 민·관 급식네트워크 구축·운영
  - 공무원·급식업체·관계자 등 네트워크 구축, 계획 추진 및 모니터링
  - 대체급식 아동에게 음식점 이용 등 급식방법 사전안내 및 불편 방지

**붙임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 민간차원의 나눔 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독거노인, 쪽방거주민, 저소득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소외계층 지원
  - 중앙회 및 17개 지회를 통해, 상품권, 현금, 생필품, 쌀 등을 지원할 계획

**【 붙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 명절 지원 계획**

구 분	추석 명절 지원	
	2016년 지원 실적	2017년 지원 계획
사업 수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17개 지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17개 지회
지원 대상	독거노인, 쪽방거주민, 저소득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약 23만명	독거노인, 쪽방거주민, 저소득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약 21만명
지원 금액	현금(상품권 포함) 또는 물품(쌀, 생필품, 차례상 등) 약 100억원	현금(상품권 포함) 또는 물품(쌀, 생필품, 차례상 등) 약 90억원

**붙임 5**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대책**

□ 추진방향

- 추석 명절을 맞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후원물품 전달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도모 및 추석명절 정서적지지

□ 추진내용

○ (대상) 요보호 독거노인

-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24만명,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 8.8만명, 독거노인사랑잇기 대상자 7만명 등

○ (안전확인 강화)

- 지자체와 전국 노인돌봄 수행기관을 통한 추석기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 \* 연휴 직전·직후 대상자 전원 방문 안전확인 및 연휴기간 중 최소 3회 이상 안전확인 실시 등 「'17년 추석기간 독거노인 안전확인 대책 수립」 지자체 통보(9월중)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요보호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 실시

- \* 전국 244개 수행기관을 통해 치매, 자살고위험 및 학대피해 독거노인 등 '요보호 독거노인' 대상 확인 및 관리

○ (지역단위 긴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긴급상황 대응체계(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점검, 당직근무 운영 등) 구축

○ (후원금품 지원)

- 독거노인 후원협약 참여 기업·단체와 연계하여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추석명절 식품키트 등 후원금품 전달

**붙임 6**

**노숙인 보호 및 지원대책**

□ 추진방향

- 추석 명절을 맞아 노숙인 등이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격려하며 연휴기간 시설별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노숙인 보호

\* 지자체에 ‘추석명절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 통보(9월)

□ 추진내용

○ (명절기간 시설 이용자 지원·격려)

- 송편 등 명절음식 제공, 공동 차례상 차리기, 한복입고 민속놀이 즐기기, 추석명절 선물주기 등

○ (명절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실시)

- 이용시설 및 자활시설 입소 노숙인 3식 제공 확대
-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하여 실내무료급식 지속 지원

○ (명절기간 노숙인 건강관리 지속 추진)

- 진료 가능 기관(보건소, 1·2차 의료기관 등)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명절기간 지자체, 시설 간 비상연락망 구축)

- 노숙인 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 **붙임 7**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긴급보육**

### □ 추진방향

- 추석연휴 전 임시공휴일(10.2) 지정·시행에 따른 맞벌이 부부 등 긴급보육 수요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학부모 불편 해소
  - 임시공휴일은 일반화된 휴일이 아니어서 당일 출근해야하는 맞벌이 가정 등 보육이 필요한 학부모의 불편 예상

### □ 추진내용

-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
  -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맞벌이 가정 등 보육수요가 있을시 당번교사 배치 등 긴급보육 이행
  - 등원하는 아동(보육료 지원자격 대상)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
    - \* 휴일보육 지정시설의 경우 정부지원 일 보육료 및 휴일근무수당 일 5만원 지원
- 임시공휴일 긴급보육에 관한 사항의 어린이집·학부모 홍보
  - 어린이집을 통한 가정통신문 배포 및 보육정보 온라인 사이트(아이사랑 보육 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안내

## 붙임 8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 연장

### □ 추진배경

- 추석 등으로 인한 장기간 연휴로 '17.9월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 가능일이 부족하여 국민 불편 예상

\* '17.9.28일 고지서 수령 후 휴일 제외한 납부 가능일은 3일에 불과(9.28~29일, 10.10일)

- 연휴 바로 다음날인 납부 마감일(10.10일)에 납부가 몰려 전산서버 문제 등 발생시 추가적 혼란 발생 우려

### □ 추진내용

- (주요내용) '17.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당초 10.10일에서 12일로 2일간 연장 추진

- 추석 연휴 후 납부 가능일을 3일까지 확보하여 국민의 안정적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

\*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대효과)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 부담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